

#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삶, 어떻게 지원할까?

글 권영우 아산재단 복지사업팀 / 사진 송은지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앞줄 중앙)는 '사회적 파급효과와 출구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해주었다.



컨퍼런스 사회를 맡은 꿈더하기지원센터의 채민정 센터장과 기초강연을 하는 이봉주 교수(왼쪽부터).

아산재단은 매년 사회복지단체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자립사업에 필요한 기능보강과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프로그램 지원, 노인 자원봉사자의 독거노인에 대한 전화말벗 서비스 지원, 그리고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사업 등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 발달장애 지원사업은 3년 장기사업으로 기관별로 연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하여 3년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5년부터 매년 10기관 내외를 신규 선정할 수 있도록 연간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하여 2016년 20억 원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30억 원으로 증액된다.

## 2015년과 2016년, 19개 기관 지원

2015년 첫 사업 수행기관으로 9개 기관이 선정됐고 1년간의 사업평가를 거쳐 이 중 8개 기관이 올해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신규로 선정된 기관은 11곳으로 현재 19개 기관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재단은 발달장애 사업을 수행하는 각 기관이 계획했던 사업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지원단인 자문교수 제도를 만들어 기관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자문교수 1명당 3~4개 기관을 맡아 분기별로 모임을 가지면서 사업 진행상황을 상호 점검하고 공유한다.

2015년 3명으로 시작한 자문교수는 2016년 지원기관 11곳이 추가되면서 5명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 선정되어 1년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1년차 사업성적을 공유하고, 2016년 신규 선정된 기관은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여 보자는 의미에서 전체 기관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아산재단에서는 각 기관별 사업성적을 공유하고 상호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발달장애 컨퍼런스를 기획하게 되었다.

## 자문교수와 사업담당자 등 100여 명 참석

컨퍼런스 준비를 위해 2015년에 선정되었던 8개 기관이 주축이 되어 8월초 실무위원회가 꾸려졌고,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이 간사 역할을 맡아 전체적인 행사 진행을 맡아 주었다.

짧은 준비기간에도 다섯 번의 실무위원회의를 거치며 컨퍼런스가 구체화되었고, 드디어 10월 24일 '아산재단 발달장애 지원사업 참여기관 네트워크'라는 부제로 '2016년 발달장애 컨퍼런스'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이어진 컨퍼런스에는 재단의 발달장애 자문교수와 19개 기관별 사업 담당자 및 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15년에 선정되어 2016년 2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캠프힐마을,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하트하트재단,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노틀담복지관, 성민복지관 등 8개 기관이다.

2016년에 신규 선정된 기관은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과천시장애인복지관, 꿈더하기지원센터, 밀알복지재단, 베타니아복지재단,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아산재단 자문교수인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왼쪽)와 정무성 숭실사이버대 부총장(오른쪽)이 아산재단의 발달장애 발달장애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성과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컨퍼런스에는 100여 명이 참석해 발달장애 지원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왼쪽부터).



울산참사랑의집,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청록원, 충현복지관 등 11개 기관이다.

## 포스터 전시와 기조강연

컨퍼런스 시작에 앞서 19개 기관의 사업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는 포스터 전시회가 회의장인 이룸홀 안의 2개 벽면에 마련됐다.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휴식시간 틈틈이 다른 기관의 사업내용과 목표 및 성과가 전시된 포스터를 통해 사업내용 전반을 이해할 수 있었다.

포스터 전시와 참가자 접수 및 등록에 이어 오후 1시30분 자문교수인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개회사와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컨퍼런스가 시작됐다. 사회는 꿈더하기지원센터의 채민정 센터장이 맡았다.

이봉주 교수는 ‘사회적 과급효과 창출 및 출구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발달장애 지원사업이 어떻게 사회적 의미를 갖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와 함께 지원 종료 이후의 자립방안을 위한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강의를 해주었다.

특히 출구전략에 관한 내용은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올해 신규로 선정된 기관들에게는 차후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도록 하였다.

## 성과 발표와 분과별 학습

기조강연 뒤에는 사업 2년차를 맞은 8개 기관의 발표가 이어졌다.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의 김종인 원장과 성민복지관의 심향은 사회복지사,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창훈 변호



재단으로부터 발달장애 사업지원을 받은 19개 기관은 회의장 안에 사업내용을 요약한 포스터를 전시해 참석자들과 사업성과를 공유했다.





아산재단은 2015년에 8개 기관의 발달장애인 사업을 지원했다.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창훈 변호사와 성민복지관 심향은 사회복지사(왼쪽부터) 등 1년차 사업기관의 발표가 이어졌다.

사, 캠프힐마를 김은영 대표, 하트하트재단 김희은 부장,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리나 국장, 노틀담복지관 김수미 팀장 그리고 고양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신혜용 팀장 등은 1년 동안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겪은 고충과 어려움을 해결한 방법, 성과내용 및 한계점 등을 차례로 발표했다.

8개 기관의 성과 발표가 끝난 오후 4시30분부터는 사업 주제별로 3개 분과를 나누어 5명의 자문교수와 함께 분과별 학습을 진행했다.

분과별 학습은 1년차 사업기관과 2016년에 새롭게 선정된 11개 기관이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제1분과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봉주 교수와 오승환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분과인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과 삶'(정무성 숭실사이버대 부총장), 3분과인 '발달장애인가족과 자립지원'(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3개의 주제로 나누어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됐다.

분과별 학습 참석자들은 "발달장애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기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수님들께 자문을 받으니 짝 막혔던 가슴이 뚫리는 기분이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면서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해 큰 기대를 표시했다.

## “문제 해결하는 자신감 찾았다”

분과별 학습 종료 후에는 오승환 교수와 김미옥 교수의 총평이 이어졌다. 오승환 교수는 “각 기관이 달성한 성과와 잘한 점 위주의 발표보다는 실패 사례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장

조하면서 “왜 실패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면 처음 도전하는 기관들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총평 후 기념촬영을 끝으로 컨퍼런스를 마무리한 참석자들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포스터 전시와 기관별 성과발표, 분과별 학습을 통해 다른 기관과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며 앞으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시설거주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대응하는 종사자 스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청록원의 김민진 원장은 “오늘 발달장애 컨퍼런스를 통해 19개 기관의 다양한 사업내용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 기관의 사업을 어떻게 차별적으로 발전시키고 어떤 출구전략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행사 진행을 맡은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의 정도선 사무국장은 “올해 발달장애 컨퍼런스의 실무 준비를 맡아준 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각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기관별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찾을 수 있어서 2년차와 3년차에도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달장애 컨퍼런스에 참가한 19개 기관의 모든 이야기를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마음만은 동일함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컨퍼런스를 통해 각 기관의 실무자들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기관과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맺어 협력하고, 자문교수의 도움을 받아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